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보육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김 리 진¹⁾

고려대학교 사회정서발달연구소

정 옥 분²⁾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3세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능력의 관계에서 보육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소재 보육시설의 만3세 유아 287명이다. 자료분석은 Pearson의 상관분석, 경로분석(χ^2 검증과 모델 적합도지수)과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Sobel Z-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기질 변인은 보육교사-유아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변인들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보육교사-유아 관계 변인들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변인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자기조절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자기조절능력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육교사-유아 관계를 통해서는 자기조절 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유아, 기질, 자기조절능력, 보육교사-유아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 매개효과

* 본 논문은 2011년 고려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Supported by a Korea University Grant).

1) 고려대학교 사회정서발달연구소, 연구교수

2)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E-mail : obchung@korea.ac.kr)

I. 서론

현대사회에서 유아기에 보육시설에 다니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유아들이 과거에 비해 첫사회 경험이 빨라지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아들에게는 가정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또한 주요한 양육환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을 다니는 유아에게 주양육자는 어머니와 보육교사 2인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낮시간 동안의 주양육자는 보육교사이고, 그 이후 시간의 주양육자는 부모가 된다. 과거에 비해 현대사회에서 생활하는 유아는 두 양육환경(보육시설과 가정)에 적응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상황적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 사회정서적 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에는 적응적인 인간생활은 인지능력(IQ)보다는 사회정서적 능력(EQ)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도덕이나 관습적 행동기준을 갖고 환경의 요구에 맞게 자신을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유능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즉각적인 욕구와 충동은 통제하면서,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을 구분하여 자신(행동, 사고, 감정)을 조절하는 자기조절능력이 적절히 요구된다(Mayer & Salovey, 1997).

자기조절은 포괄적인 의미로 스스로 자신의 기능과 상태를 통제하는 과정(Vohs & Baumeister, 2004)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은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인격체로 성장·발달하게 된다. Salovey와 Sluyter(1997)는 사회적 상황에서 문제

를 해결하는 대처행동은 자기조절능력에 기인한다고 하였으며, Bronson(2001)은 자기조절능력이 각성 및 정서적 반응의 조절, 친숙한 환경에서의 적응적 조절 및 문제해결과 같은 인지적 과정의 조절 등을 통해 유아기에 도약적으로 발달한다고 하였다. 이정란과 양옥승(2003)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자기통제와 자기조절을 포함하는 상위인지 개념으로 보고, 스스로 상황에 맞게 자신을 조절할 수 있으며, 자율적이고 융통성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유아기에 형성된 자기조절능력 패턴은 이후 삶의 행동적·정서적 반응을 조직하는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Kopp, 1982). 좀더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이 시기에 자기조절능력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하면, 이후에 반항적인 행동,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엔 자기조절능력의 상실로 역기능적 사회문제(범죄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감안하면(김선휘, 2006), 자기조절능력은 유아기에 습득해야 할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다(송혜영, 2007; 정은주, 2005; Brownell, Etheridge, & Hugerford, 1997). 이는 종단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는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결핍은 주의집중력, 과잉행동, 문제해결능력과 의미있는 상관을 보였고,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반사회적 행동과 행동장애와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Caspi, Henry, McGee, Moffitt, & Silva, 1995; Personen, R  ikk  nen, Kwslovaara, & Keltikangas-J  rvinen, 2003).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아기에 낮은 부정적 정서성과 높은 자기조절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 아동기의 사회적 행

동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정서와 자기조절능력이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Eisenberg, et al., 1994).

유아기 자기조절능력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차의 본질적 요인으로 주목받는 변인은 기질이다. Tomas, Chess와 Brich(1968)는 중단연구를 통해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아의 기질의 차이가 이후의 사회정서발달을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Rothbart와 Derryberry(1981)도 자기조절능력에서 보이는 상대적인 생물학적 차이가 기질이며, 개인의 타고난 기질이 발달과정에서 어떻게 조직화되는지 또는 변화되는지에 따라 이후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상호관련성을 입증하는 선행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까다로운 기질인 경우, 양육자가 유아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로 기질의 유형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련성을 시사하였고(Bates, 1980; Lytton, 1990), 그 외도 충동적인 기질적 특성과 자기규제능력과 상관이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엄정애, 2004; 최지현, 2001; Elias & Berk, 2002). 이처럼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능력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이 기질과 같은 선천적 특성으로만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Vygotsky(1978)는 유아가 성장하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회적인 조절과 타인과의 조절이 점차 자기조절로 전이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자기조절능력은 영아기부터 아동기까지 점진적인 단계

(신경생리학적 조절단계, 감각운동적 조절단계, 통제단계, 자기통제단계, 자기조절단계)를 거쳐 발달한다. 영아기부터 자기조절적 사고가 나타나지만, 자기조절능력의 기초를 학습하는 시기는 유아기이다. 이 시기동안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 Bandura(1977, 1997)의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모델링의 대상인 중요한 타인으로 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Kopp(1982)의 연구에서 유아가 어떤 과업을 수행할 때 양육자의 반응에 의해 자기조절능력은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ubin, Burgess, Dwyer 및 Hastings(2003)는 중단연구를 통해 유아의 타고난 기질적 특성이 그들의 양육자들이 보호하고 돌보는 양육행동패턴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사회정서발달이 결정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즉 만2세에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어머니에게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유발시켜 만4세에는 외현화된 행동문제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타고난 기질적 특성이 주양육자인 보육교사와의 관계 및 보육시설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입증되었다(이기영, 2007; 최은정, 하지영, 서소정, 2009; Rubin, et al., 2003). 한 예로 Rubin과 동료들(2003)은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보다 순한 기질의 유아가 보육시설에 더 잘 적응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주양육자인 보육교사가 유아의 기질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이 유아를 보육하는 보육교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주양육자(어머니와 보육교사)들과의 상호작용과 유아

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 결과를 좀더 살펴보면, 우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수정, 2005; 박윤자, 2005; 박지숙, 박성연, 2008; 이일선, 2008; 조영숙, 2008; Hastings, Rubin, & DeRose, 2005). 어머니가 유아를 양육할 때, 애정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지도할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육교사와 유아의 관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발달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보육교사와 유아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였을 때, 그렇지 못한 유아보다 더 많은 긍정적인 정서와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opeland, Denham, & DeMulder, 1997). 보육교사와 유아의 관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련성을 2~3년간 추적연구한 결과, 보육교사와의 관계와 유아의 사회적 관계(타인과의 상호작용)가 원만할수록 유아가 보육시설에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irch & Ladd, 1997). 국내 다수의 연구에서도 유아가 보육교사에게 적절한 지지를 받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되고, 또래관계에서 유능하며, 보육시설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정미, 권희경 2008; 이선애, 현은자, 2010; 이진숙, 2001; 전경아, 2003).

보육경험이 일반화된 현시점에서 유아가 보육시설에서 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보육교사와 지내고, 가정에서 개인적 요구에 민감하고 일관성 있게 반응을 하는 어머니에게서 양육된다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적절한 수준으로 발달될 것이다.

이처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과 가정에서의 주양육자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연구는 이 두 양육환경을 분리하여 연구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보육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기질, 보육교사-유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아의 기질은 보육교사-유아의 관계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자기조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 보육교사-유아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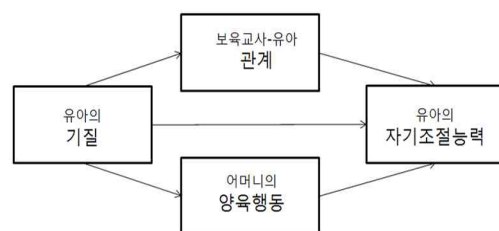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유아의 기질, 보육교사-유아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발달적 측면에서 유아기(24개월에서 72개월 미만) 중 24개월부터 48개월까지는 공격성이나 과도한 수줍음 같은 미성숙한 행동특성이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유아기는 자기통제와 자율성 발달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편차가 매우 크다(Laezelere, Amberson, & Martin, 199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보육교사

가 3개월 이상 보육한 36~48개월(만3세) 유아로 한정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 32개 보육시설에 협조를 구해, 재원중인 유아 중 만3세(36~48개월) 유아의 담당 보육교사와 어머니를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연구자가 보육시설의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를 직접 만나 연구의 목적, 대상 유아의 선정방법과 설문지 작성 요령을 설명한 후, 보육교사용 설문지는 보육교사가 방과 후에 작성하였고, 어머니용 설문지는 보육교사를 통해 유아의 어머니에게 전달하여 수거하였다. 총 배포된 설문지는 배포된 305부 중 성실하지 못한 응답 18부를 제외한 총 287부(보육교사는 140명)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유아	남아	158(55.1)	
성별	여아	129(44.9)	
어머니의 연령	20대	23(8.5)	
	30대	220(81.5)	
	40대	27(10.0)	
어머니의 학력	고졸이하	93(33.8)	
	전문대졸	72(26.2)	
	대졸	97(35.3)	
	대학원졸 이상	13(4.7)	
어머니의 취업상태	무	전업주부 121(43.1)	
	유	시간제 취업	41(14.6)
		전일제 취업	119(42.3)
보육교사의 연령	20대	94(67.2)	
	30대	36(25.7)	
	40대	10(7.1)	
보육교사 경력	3년 이하	67(47.9)	
	6년 이하	48(38.9)	
	6년 초과	25(13.2)	

* 무응답으로 인해 각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2. 측정도구

기질

유아의 기질 척도는 Bates, Freeland와 Lounsbury(1979)가 개발한 영유아 특성 척도 (Infant Characteristics Questionnaire: ICQ)를 김수원(2006)이 번안·수정한 것으로 어머니가 평정하는 척도이다. 본 척도는 까다로운 정도, 부적응성, 둔감성, 비예측성 4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24문항이다. 이 척도는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기질을 더 어렵고 까다롭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김수원(2006)은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했고,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기질 척도의 Cronbach's α 는 하위요인인 까다로운 정도 .75, 부적응성 .68, 둔감성 .70, 비예측성 .69, 그리고 전체 .81

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유아 관계

보육교사-유아 관계 척도는 Pianta(1991)이 개발한 STRS(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s)를 김리진(2008)이 번안·수정한 것으로 보육교사가 평정하는 척도이다. 본 척도는 갈등, 친밀감, 의존성 3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28개 문항이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의존성 요인과 갈등 요인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는 자신과 유아가 친밀하고, 갈등이 적고, 덜 의존적인 긍정적인 관계라고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ianta, Steinberg와 Rollings(1995)는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했고, Cronbach's α 는 .72~.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유아 관계 척도의 Cronbach's α 는 하위요인인 갈등 .90, 친밀감 .77, 의존성 .67, 그리고 전체 .87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는 Crase, Clark과 Pease(1978)가 제작한 아이오와 부모양육행동 척도(IPBI: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other Form)를 홍계옥(1994)이 번안·수정한 것으로 어머니가 평정하는 척도이다.

본 척도는 합리적 지도, 한계설정, 애정성, 반응성으로 4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26문항이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자녀를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명확한 한계를 지워주는 양육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계옥(1994)은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했고, Cronbach's α 는 .84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 양육행동 척도의 Cronbach's α 는 하위요인인 합리적 지도 .81, 한계설정 .68, 애정성 .78, 반응성 .73, 그리고 전체 .91로 나타났다.

자기조절능력

자기조절능력 척도는 이정란과 양옥승(2003)이 개발한 것으로 어머니가 평정하는 척도이다. 본 척도는 자기점검(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평가 및 스스로 계획하고 문제해결 전략을 선택하는 능력)과 자기통제(스스로 정서와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 2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31문항이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정란과 양옥승(2003)은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했고, Cronbach's α 는 .8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능력 척도의 Cronbach's α 는 하위요인인 자기점검 .82, 자기통제 .76, 그리고 전체 .85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2.0과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변인들 간의 일반적인 경향과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χ^2 검증과 적합도지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적합도 지수 중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데 유용하다고 알려진(홍세희, 2000),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끝으로 매개효과 검증은 Sobel 공식을 이용한 Z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유아의 기질, 보육교사-유아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상관관계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의 기질, 보육교사-유아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유아의 기질은 보육교사-유아 관계($r=-.14$, $p<.01$), 어머니의 양육행동($r=-.40$, $p<.001$), 유아의 자기조절능력($r=-.45$, $p<.001$)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유아의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보육교사-유아 관계는 부정적이고, 어머니의 양육행동도 부적절하고,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유아 관계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고, 유아의 자기조절능력($r=.19$, $p<.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보육교사와 유아가 긍정적인 관계일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r=.48$,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양육할수록 유아는 자기조절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은 3단계를 거쳐 검증되었다. 1단계는 보육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완전매개를 하는 기본모형을 추정하였다(그림 2 참조). 2단계는 유아의 기질에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으로의 직접경로를 추가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보육교사-유아 관계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연구모형을 추정한 후, 1단계의 기본모형과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였다.

표 2.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의 기질, 보육교사와 유아의 관계, 그리고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상관분석

	유아의 기질	보육교사- 유아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자기점검	유아의 자기통제
보육교사-유아 관계	-.14**				
어머니의 양육행동	-.40***	.11			
유아의 자기점검	-.31***	.17**	.41***		
유아의 자기통제	-.47***	.15**	.42***	.47***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총점	-.45***	.19***	.48***	.88***	.83***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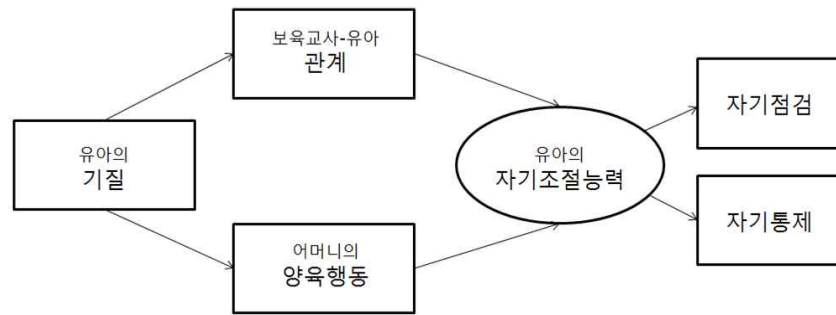


그림 2. 기본모형: 완전매개 모형

표 3. 기본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보육교사-유아 관계 ← 기질	-.09	-.15**	.03
양육행동 ← 기질	-.32	-.41***	.04
자기조절능력 ← 보육교사-유아 관계	.16	.16**	.06
자기조절능력 ← 양육행동	.48	.61***	.06
자기점검 ← 자기조절능력	1.00	.68	
자기통제 ← 자기조절능력	.84	.66***	.11

** $p < .01$ *** $p < .001$

끝으로 3단계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Sobel(1982)의 공식으로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 유아의 기질이 보육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모형에서 추정된 경로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그림 2, 표 3 참조). 즉 유아의 기질은 보육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부적으로 예측하였고, 보육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기본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¹⁾($\chi^2_{df=4}=47.907$, $p=.000$, TLI=.973, CFI=.993, RMSEA=.117).

2단계는 기본모형에 유아의 기질에서 자기조절능력으로 가는 직접경로를 추가하여, 보육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부분매개 변인으로 하는 연구모형을 추정한 것이다. 그 결과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는 유의하게 나타났다($\chi^2_{df=3}=7.808$, $p=.049$, TLI=.999, CFI=.999, RMSEA=.070). 부분매개 모형에서 유아의 기질은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40$, $p<.001$). 그리고 기질은 보

1) 적합도 지수에 대한 평가기준은 TLI와 CFI는 .90 이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적합도 수준이고, RMSEA는 .06미만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양호한 적합도 수준으로 해석한다(홍세희,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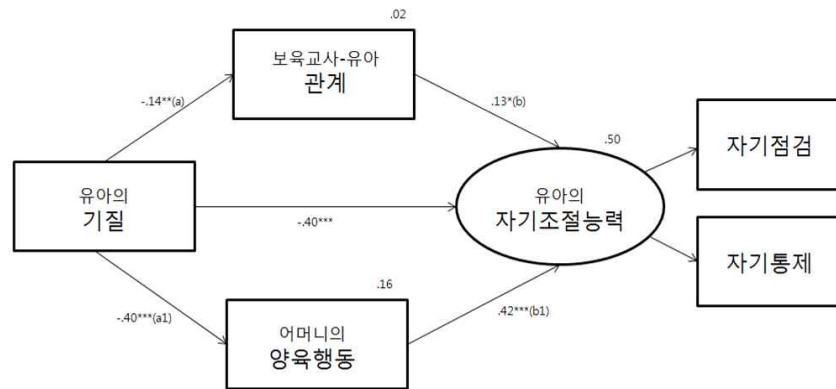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 부분매개 모형의 경로계수

표 4.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보육교사-유아 관계 ← 기질	-.09	-.14**	.03
양육행동 ← 기질	-.31	-.40***	.04
자기조절능력 ← 기질	-.23	-.40***	.04
자기조절능력 ← 보육교사-유아 관계	.12	.13*	.05
자기조절능력 ← 양육행동	.31	.42***	.05
자기점검 ← 자기조절능력	1.00	.62	
자기통제 ← 자기조절능력	.99	.74***	.12

* $p < .05$ ** $p < .01$ *** $p < .001$

육교사-유아 관계($\beta = -.14$, $p < .01$)를 통해 자기조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beta = .13$, $p < .05$), 어머니의 양육행동($\beta = -.40$, $p < .001$)을 통해 자기조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 = .42$, $p < .001$). 한편, χ^2 검증으로 1단계의 기본모형과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Delta\chi^2 = 40.099$, $p < .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보육교

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부분매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표 4 참조).

끝으로 연구모형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보육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매개변인으로서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 보았다.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Sobel(1982)의 공식을 사용하여 ab 에 대한 Z 검증을 실시하였다.

$$Z_{ab} = \frac{ab}{\sqrt{SE_a^2 SE_b^2 + b^2 SE_a^2 + a^2 SE_b^2}}$$

<i>a</i>	기질 → 보육교사-유아관계
<i>a1</i>	기질 → 어머니의 양육행동
<i>b</i>	보육교사-유아관계 → 자기조절능력
<i>b1</i>	어머니의 양육행동 → 자기조절능력
<i>SEa</i>	<i>a</i> 의 표준오차
<i>SEb</i>	<i>b</i> 의 표준오차

연구모형에서는 기질(독립변인)에서 보육교사-유아 관계(매개변인)로 가는 경로(*a*)와 보육교사-유아 관계(매개변인)에서 자기조절능력(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b*)가 유의해야 하고, 간접효과(*ab*)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 나타난 *a*, *b*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보육교사-유아 관계 매개효과 *ab*의 *Z*값은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작게 나타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ab*=-.0108, *Z_{ab}*=-1.87, *p*=.061).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매개효과 *a1b1*의 *Z*값은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더 크게 나타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a1b1*=-.0961, *Z_{a1b1}*=-4.84, *p*=.000). 연구모형의 모든 경로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보육교사-유아 관계를 매개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모형 검증결과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가 기질적으로 덜 까다로울수록 자기조절

능력이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더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애정적이고 반응적으로 양육하는 등의 적절한 양육을 경험하게 되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기질의 직접효과 및 보육교사-유아의 관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기질 변인은 보육교사-유아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변인들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보육교사-유아 관계 변인들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변인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기질이 덜 까다로울수록 보육교사-유아 관계는 긍정적이고, 어머니가 더 적절한 양육행동을 하고,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유아의 경우, 주변의 성인들은 이들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까다로운 유아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거나 이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Bare, 1980; Lytton, 1990)와 이후에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능력이 발달하

지 못해 반사회적인 행동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엄정애, 2004; 최지현, 2001; Elias & Berk, 2002)와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유아에게 맞는 적절한 양육행동을 할수록, 다른 주양육자인 보육교사와 유아의 관계가 좋을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적절한 양육행동(권수정, 2005; 박윤자, 2005; 이일선, 2008; 조영숙, 2008)과 보육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유정미, 2009; 이선애, 현은자, 2010; 이진숙, 2001; 전경아, 2003; Birch & Ladd, 1997; Copeland, et al., 1997)가 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였다. 또한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와 유아의 친밀한 관계가 유아의 친사회적 능력, 또래관계의 유능성, 적응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유정미, 권희경, 2008; 이선애, 현은자, 2010; 이진숙, 2001; 전경아, 2003; Copeland et al., 1997)와는 일맥상통하는 결과였다.

둘째, 본 연구모형에서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된 가운데 유아의 기질은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났던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자기규제능력, 사회적 행동 및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엄정애, 2004; 최지현, 2001; Caspi et al., 1995; Eisenberg et al., 1984; Elias & Berk, 2002)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이해한 개별적 양육경험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

라서 유아 양육이 가정과 보육시설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주양육자인 보육교사와 어머니가 유아를 공동으로 양육할 때는 주양육자들 간의 신뢰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양육자들이 유아의 기질적 특성에 대해 일치되고 바르게 이해하여 일관성있게 양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과정 내에 정기적인 부모간 담회 및 부모상담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주양육자들 간에 서로 의견을 나누며 유아를 이해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유아의 기질이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주양육자들(보육교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주양육자 중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은 보육교사의 보육행동보다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더 촉진된다는 것이다. 이는 Vygotsky(1978)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성장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회적인 조절과 타인과의 조절에 의해 발달된다는 주장, 그리고 Bandura(1977, 1997)와 Kopp(1982)가 주장처럼 자기조절능력은 유아의 주양육자의 반응에 의해 촉진된다는 주장을 일부 뒷받침한다.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와 적절한 정서반응과 같은 양육행동은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기질과 같은 변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박지숙, 박성연, 2008)와도 일치된다. 또한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을 통해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유발된다는 선행연구 결과(Rubin et al.,

2003)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주양육자의 특성 중 보육교사-유아 관계는 매개효과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즉 보육교사-유아의 관계는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능력 간에 매개 역할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유아의 기질적 특성과 자기조절능력을 매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적 특성은 일대 다수로 상호작용하는 보육교사의 보육행동만으로는 중재하기 어렵고 일대일로 상호작용하는 어머니의 적절한 양육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와 보육시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보육기관에서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어머니의 적절한 양육행동을 지원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에게 자기조절능력을 증가시키고, 사회정서적 적응능력을 촉진하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지역에 위치한 보육시설의 만 3세 유아로 임의표집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는 한계가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계층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이지희, 문혁준, 2007), 추후에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자료를 횡단적 연구방

법으로 수집하고,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로 설명한 것에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 셋째, 서울시 에 위치한 보육시설을 임의표집한 것이므로, 추후에 보육교사의 보육행동에 대한 전문성 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능력을 질문지를 통한 어머니의 보고에 의해 수집한 것이므로, 추후에는 다른 주양육자인 보육교사의 보고와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조력적 관계를 매개변수화 하였다는 점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현대사회의 유아기 부모나 보육교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권수정 (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리진 (2008). 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문제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혜 (2006).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변인들과의 관계성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원 (2006).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 및 영유아의 울음과 기질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윤자 (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놀이성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지숙, 박성연 (2008).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5(4), 1-16.
- 송혜영 (2007). 유아의 정서적·행동적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엄정애 (2004). 유아의 충동성 기질 및 사회극놀이 참여도와 자기규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5), 41-58.
- 유정미 (2009). 교사-유아관계,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유능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정미, 권희경 (2008).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관련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 및 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교사-유아 관계, 유아의 자기조절력 중심으로. *한국교육논단*, 8(1), 265-290.
- 이기영 (2007). 교사의 보육신념, 보육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및 영아기질과 교사-영아상호작용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애, 현은자 (2010). 교사-유아의 관계와 유아의 또래유능성 및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연구. *아동학회지*, 31(2), 1-15.
- 이일선 (200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란, 양옥승 (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2), 69-90.
- 이지희, 문혁준 (2007).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6), 77-88.
- 이진숙 (2001). 유아의 애착표상과 교사-유아 관계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경아 (2003). 유아의 또래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가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은주 (2005). 유아의 행동적·정서적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영숙 (200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간의 관련성 탐색.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은정, 하지영, 서소정 (2009). 보육시설에서의 영아-교사 상호작용과 영아의 발달수준, 교사의 민감성 및 초기 가정환경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30(2), 71-95.
- 최지현 (2001).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통제와의 관계. *아동교육*, 10(1), 133-146.
- 홍계옥 (1994).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 애착행동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

- 지: 임상, 19, 161-177.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Prentice Hall.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W. H. Freeman Publishers.
- Bates, J. E. (1980). The concept of difficult temperament. *Merrill-Palmer Quarterly*, 26(4), 299-319.
- Bates, J. E., Freeland, A. B., & Lounsbury, M. (1979). Measurement of infant difficultness. *Child Development*, 50, 794-803.
-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Psychology*, 35(1), 61-79.
- Bronson, M. B. (2001). *Self-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nature and nurture*. NY: Guilford press.
- Brownell, C., Etheridge, W., & Hugerford, A. (1997). *Socialization of self-regulation: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ver age and context*.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 Caspi, A., Henry, B., McGee, R. O., Moffitt, T. E., & Silva, P. A. (1995). Temperamental origin of child and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from age three to age fifteen. *Child Development*, 66, 55-68.
- Copeland, M. J., Denham, S., & DeMulder, E. (1997). Q-sort assessment relationship and social competence in the preschool.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8(1), 27-39.
- Crase, S. J., Clark, S. G., & Pease, D. (1978).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anual*.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 Eisenberg, N., Fabes, R. A., Karbonn, M., Murphy, B. C., Maszk, P., & Smith, M. (1984). The role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in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6, 1365-1384.
- Elias, C. L., & Berk, L. E. (2002). Self-regulation in young children: Is there a role for sociodramatic pla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7, 216-238.
- Hastings, P. D., Rubin, K. H., & Derosé, L. (2005). Links among gender, inhibition, and parental socialization in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Merril-Palmer Quarterly*, 51(4), 467-493.
- Kopp, C. B. (1982). Antecedent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Laezelere, R. E., Ambersun, T. G., & Martin, J. A. (1992). Age Differences in Perceived Discipline Problems From 9 to 48 Months. *Family Relations*, 41, 192-199.
- Lytton, H. (1990). Child and parent efforts in boys' conduct disorder.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83-697.
-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Salovey, P., & Sluyter, D.,(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 NY: Basic Books.
- Personen, A., R ikk nen, K., Kwslovaara, P., &

- Keltikangas-Järvinen, L. (2003). Difficult temperament in childhood and adulthood: Continuity from maternal perceptions to self-ratings over 17 yea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19-31.
 - Pianta, R. C. (1991). Patterns of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and kindergarten teacher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2(1), 15-31.
 - Pianta, R. C., Steinberg, M., & Rollings, K. (1995). The first two years of school: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deflections i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295-312.
 - Rothbart, M. K., & Derryberry, D. (1981).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emperament. In M. E. Lamb & A. L. Brown (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Vol. 1, pp.37-86). Hillsdale, NJ: Erlbaum.
 - Rubin, K. H., Burgess, K. B., Dwyer, K. M., & Hastings, P. D. (2003). Predicting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s from toddler temperament, conflict, and maternal negativ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9(1), 164-176.
 - Salovey, P., & Sluyter, D. J. (1997).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NY: Basic Books.
 -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pp. 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 Thomas, A., Chess, S., & Birch, H. G. (1968).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Vohs, K. D., & Baumeister, R. F. (2004). Understanding Self-Regulation. In R.F. Baumeister, & K. D. Vohs.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pp.1-12). NY: Guilford. Wade.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1차원고접수 : 2012. 1. 2
수정원고접수 : 2012. 2. 16
최종게재결정 : 2012. 2. 27

The Relationship of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Self-Regul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Young Children-Caregiver Relationship and Mother's Behavior at Home

Kim, Lee Jin

Institute of Social & Emotional Development,
Korea University

Chung, Ock-Boo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self-regulation. Special attention was given to the mediating effect of the caregiver-young child relationship and the mother's behavior at home.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287 young children, who were 3-years of age, attending day care centers in Seoul.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Pearson's correlation, path analysis and the verification procedure of the mediating effects were analyzed by the use of the Sobel of Z-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young children's temperament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caregiver-young child relationship, the mother's behavior at home, and self-regulation. The caregiver-young child relationship and the mother's behavior at home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self-regulation in young children attending day care centers. Second, the direct impact of young children's temperament on self-regulation was mediated by the mother's behavior at home. However, no mediating effect upon self-regulation was evident from observation of the caregiver-young child relationship.

Key words : young children, temperament, self-regulation, caregiver-young children relationship, mother's behavior at home, mediating effect